

“24일부터 총장 없지만, 제도는 있어야”

〈차기 총장 선출제〉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오는 23일로 예정된 조인원 총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기 총장을 선출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지 못했다. 차기 총장 선출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총장 선출 역시 늦춰지고 있다. 법인 단독 선임 구조를 탈피한 타 대학에서 총장 선출 과정이 최소 3달 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총장 공석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총장 선출제 개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은 지난 여름 방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5월 대학평의회(대평의)와 법인은 ‘차기 총장, 새 제도’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법인이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 투표 방식’ 도입을 반대하면서 실무회의가 결렬되자, 두 달 가량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지난 8월 29일 법인 이사회에서 예정됐던 총장 선출제 개정마저 무산됐다.

이후 조인원 총장이 4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9월 4일 총장 선출제 개정안 논의가 적극적으로 재개됐다. 하지만 일부 구성원 단체들이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배제됐

다고 지적함에 따라 지난 9월 13일 법인 공영일 이사장은 돌연 “앞으로 대학이 총장 선출제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는 29일간 결렬 상태에 머물러 있던 개정안 논의가 재개된 지 10일 만이었다.

법인의 일방과기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조인원 총장은 9월 17일 “구성원 의견 수렴에 대학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평의에 속하지 않는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학이 논의 테이블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소득 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18일 열린 구성원 대표자 간담회 당시 국제캠퍼스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은 “하나의 초점없이 진행되는 방식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수회의 또한 지난 2일 통신문을 통해 “조인원 총장은 구성원 의견 수렴을 하겠다면서 50일 동안이나 법인 소위원회와 대평의 대표단의 논의를 중단시켰다”며 “이는 총장 자신이 구상한 선출 안으로 선임 총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학생회·직

원노조·총동문회와 함께 ‘총장선출을 위한 범경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선출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진전이 없다면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운영 전반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논의’는 총장 선출제 이슈에 밀려 지난 6월부터 반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김영진 서울 사무국장은 “차기 총장이 빨리 선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SPACE21 2단계 사업 등 총장 없이는 결정되기 힘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더십 부재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총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잠시 정지될 것”이라며 “총장 대행이 책임지기 힘든 인사, 재정 등의 사안이 상당부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총장 임기 만료 이전에 새로운 제도를 확정하려면 구성원 의견 수렴과 개정안 단일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1일 조인원 총장이 대평의와 가진 간담회에서 “대학이 가진 개정안은 없다”는 데 이어 “대학은 더 이상 구성원의

견 수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인원 총장이 총장선출제 논의의 주체는 대학이 아닌 법인과 구성원이 돼야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대평의는 대평의에 포함되지 않은 학내 구성원 단체의 의견을 직접 수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김종현 위원장은 “총장실이 법인과 대평의의 총장 선출제 논의 재개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 대평의가 학내 구성원 단체 의견을 수렴해 단일화된 총장선출제 개정안을 도출해야하는 숙제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법인과 개정안 단일화도 대평의가 풀어야 할 주된 숙제다. 추후 단일화 없이 대평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법인소위원회 개정안까지 법인에 제시될 경우, 법인 측 안이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잔존하기 때문이다.

대평의 이성근 의장은 “개정안 단일화를 위해 이번주 법인 공영일 이사장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며 “지난 여름방학 결렬된 실무회의를 다시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기숙사 부정’ 주장

〈경실련-학내 학생단체〉

대부분 근거 약한 것으로 판명

김수혁 sherk@khu.ac.kr

【서울】학교가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지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대자보가 두 차례에 붙어 논란이 일었으나 취재 결과 ‘밀실회의’의 존재를 비롯한 대자보의 주장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1일 학내 게시판에 〈그것이 알고 싶다-‘밀실회의’편〉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경희학원 현 책임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취재하는 학생 연대(경실련)’라는 단체 명의의 이 대자보는 학교가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지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자보는 내부 고발자에게서 입수했다는 ‘비공개 밀실회의 문건’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대자보에 따르면 경실련 측은 학교를 상대로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지연에 따른 대책회의의 내역과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 측은 2017년 7월 24일 한 건의 회의가 있었다는 답변과 회의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자신들이 가진 ‘비공개 밀실회의 문건’이 학교가 공개한 7월 24일 회의와는 별개의 대책회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주장하며 학교가 이른바 ‘밀실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대자보에서 ‘비공개 밀실회의 문건’을 바탕으로 주장한 학교의 부정행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밀실회의’의 존재를 은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둘째, 행복기숙사 입주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을 입주시켰으며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학생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셋째, 구청과 법인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로 사용승인이 지연되자 총학생회(총학)에게 구청을 압박하는 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청탁했다. 넷째, 건축 과정에서 학생 안전문제를 경시했다.

학생지원센터 이진섭 과장은 대자보가 ‘밀실회의’의 증거라고 든 문건에 대해 “그 문건은 2017년 7월 24일 회의의 참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 건설사업단이 제작한 자료다”라며 별개의 대책회의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그 자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대자보가 문제 삼은 문건 내용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예측, 대책 제안 같은 유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밀실회의’의 근거로 든 ‘비공개 밀실회의 문건’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된 회의를 위한 참고자료라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전 간호대 학생회 홍보국장 이재영(간호학 2015)씨는 “해당 자료를 제공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은 대자보의 다른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은 “구청이 행복기숙사 사용승인에 공공도로 확보를 문제 삼은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라며 “애초 건축 인허가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사회학과에는 여성 여성학 교수가 필요

【서울】노천극장 옆 중앙대자보판에 사회학과 여성학을 전공한 여성교수의 임용을 요구한 대자보가 게재됐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여성학 교수 임용을 위한 연대서명을 읽고 있다.

강래완 기자 krw97@khu.ac.kr

51대 총학선거 일정 확정 … 서울캠 26일, 국제캠 27일

박재령 기자 kparr@khu.ac.kr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2019학년도 양 캠퍼스 제 51대 총학생회(총학)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국제캠퍼스(국제캠)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캠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예비등록 및 추천기간을 거쳐,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을 가진다. 국제캠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가지고 17일부터 26

일까지 7일간은 선거운동기간이다.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선거는 국제캠이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동시에 진행되는 반면, 서울캠은 선거단위마다 상이하다. 서울캠 각 단과대학과 무용학부, 자율전공 학과는 자체적으로 선거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국제캠 중앙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단과대학 선거와 같은 기간인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고, 서울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제36대 총동아리연합회 구성을 위한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해 회장단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재보궐 선거가 두 차례 무산됨에 따라 올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던 서울캠 총여학생회의 선거 또한 오는 11월 말 이뤄진다. 서울캠 제 31대 총여학생회 선거 투표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국제캠은 올해 총학 선거에서 전자투표 시행이 확정됐다. 서울캠은 오는 5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투표방식이 포함된 세부시행세칙을 의결할 예정이다. 단과대학 선거의 경우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문과대학, 호텔관광대학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캠 총학 송태현(경영학 2014) 회장은 “중앙선거에서

11월 선거 일정

서울캠 총학 : 26~28일
국제캠 총학 : 27~29일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 27~28일
국제 중동연 : 27~28일
서울 총동연 : 19일(예정)
서울캠 총여 : 26~28일

전자투표가 이뤄진다면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단위는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캠 총학 송태현(경영학 2014) 회장과 국제캠 총학 김효형(일본어학 2011) 회장이 호선됐다.

알림

사령

〈명 정기자〉

강석현(철학 2015)

김수혁(철학 2016)

김지원(국어국문학 2018)

박소영(체육학 2017)

박혜림(원예생명공학 2017)

안수민(식물환경신소재공학 2018)

이서림(한국어학 2017)

교수 칼럼

강사법, 오해와 진실

채효정 전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 7면



시선

사설

11월의 레임덕
끝까지 책임 다하라

아침마다 바뀌어가는 캠퍼스의 색깔을 바라보며 올 한해도 끝이 다가옴을 실감한다. 대학사회에서 한 해 단위로 바뀌는 것이 한 둘이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1년 임기 선출직 학생회다. 11월이 되면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차기 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올해도 선거 일정이 공고됐으며 관례대로 현 학생회의 면면들이 선거관리위원을 맡는 모양이다.

학생회칙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학생회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딱 채운 한 해 동안 선출된 학생회는 학생을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임기가 두 달 가까이 남은 11월에 접어든 학생회는 유명무실하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월 초중순 축제준비를 시작으로 중간고사를 거쳐 선거체제까지, 2학기 이후 학생회의 역할은 미진하기만 하다.

할 일을 끝냈다면 또 모를까, 산적한 현안들을 두고도 해결할 의지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국제캠퍼스 총학은 지난 4월 총여학생회 존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로 여태껏 학생 총투표 일정을 ‘고려’ 중이다. 총여학생회 존폐 문제는 올해 대학가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다른 사안이 많아서’, ‘시험기간이라 투표율이 저조할까봐’ 투표 여부 자체도 이젠 불투명해 보인다. 여전히 임시 사용승인 중인 행복기숙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서울캠퍼스 총학 역시 관련 사안을 아직도 ‘내부 논의’ 중이다. 총여학생회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의견 수렴만 하고 존폐 여부는 다음 총학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쯤 되면 11월의 학생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을 오롯이 마치고자 할 의지가 있는지, 혹은 그저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인지. 괜히 일을 벌였다가 수습을 못한 상태로 임기 말을 맞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끝나지 않는 내부 논의와 조율은 언제 끝이 나는 것인지. 하고는 있는 것인지.

레이덤이라는 말이 있다. 보통은 권력 말기에 야당 등 주변의 견제로 권력자의 정책 수행이 어려워짐을 의미하는 용어다. 몇 해 전만 해도 단위 학생회 대표가 중앙 단위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레임덕을 야기한 적이 있기는 하다. 지금의 학생회는 스스로 일을 저버리면서 절름발이 오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학생들이 믿고 맡긴 권력 수행의 의지를 스스로 꺾었으니 이는 데드덕, 오히려 자살한 오리라 칭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11월 초에 벌써 이러한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학생회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고हे두기 위해서다. 물론 우리의 대표자들 자신이 이를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충실히 이행한 공약도 있으니 공과는 임기 끝에 다시 한 번 가리면 될 일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사안들 외에도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학생사회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 등 여전히 학생회의 업무가 남아있음을 상기하길 바란다. 임기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회 임기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대학은 지금

학내 기구 역할이 커진 대학사회

안나연 기자 na@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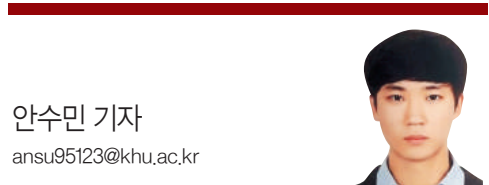
10월 12일 서울대 총장예비후보자가 정해짐에 따라 오는 9일 후보자 정책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총장예비후보자 결정, 정책평가는 내달 9일/대학신문, 2018.10.14.)** 총장예비후보자는 강태진(재료공학) 명예교수, 남익현(경영학) 교수, 오세정(물리·천문학) 명예교수, 이우일(기계항공공학) 교수, 정근식(사회학) 교수다. 이들 중 3명이 총장 후보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평가는 정책평가에 25%의 비율로 반영되지만 일각에선 총추위의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을 확인했다며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화여대에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와 총장이 면담을 통해 성폭행 가해 교수의 처분 등을 논의했다.**(중운위와 총장 간 대화, 올해 처음 열려/이대학보,**



이 주의 주제 - SPACE21 사업

SPACE21, 분발한 모습 보여줘야 한다



SPACE21 사업은 지금까지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와 신촌단과대학동, 국제캠퍼스 선승관과 외국어대학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결실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SPACE21 2단계 사업이 별 탈 없이 진행될지에 대한 구성원의 반응은 차갑다. 이는 SPACE21 사업단이 그간 보여준 모습 때문이다.

SPACE21 사업은 1단계 사업 시작부터 예산 문제로 뼈저대는 모습을 보였다. 2007년에 공식적인 추진을 발표하였지만 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진행이 늦춰져 2013년 조감도를 공개하기 전까지 어떠한 진척도 없었다. 본격적인 사업은 추진 발표 이후 7년 만에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문제로 순탄하지는 않았다.

예산 확보를 위해 SPACE21 1단계 사업 당시 우리학교는 전체 사업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약 5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했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빚더미로 안게 됐다. 2017 학년도 회계기준 대학알리미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에 따르면 우리학교 부채비율은 16.1%이다. 사립대학 평균 부채비율이 3.4%인 것과 비교에 월등히 높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SPACE21 2단계 사업인 ‘글로벌타워’의 설계는 기존 10층에서 7층 규모로 축소될 예정이다. 완성된 선승관도 체육대학

자체적으로 발전기금을 모으지 않았더라면 착공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확한 예산 책정에 실패해 무리한 계획을 하고 이후 예산에 맞춰 재설계를 반복하면서 시간·금전적 손실은 커져간다. 이로 인해 구성원은 신뢰를 잃어가는 듯 보인다.

또한 학내 구성원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의 지속적인 발표와 상호 소통도 부족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대학평의원회에서 직원 노동조합 김영진 사무국장은 SPACE21 2단계 사업 관련 내용을 ‘처음’ 접했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대표도 SPACE21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반 구성원은 더욱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간의 실사용자인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한데도 말이다.

여태껏 SPACE21은 구성원과의 소통에 귀를 막고 있는 듯하다.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은 꾸준히 ‘독립 건물’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설계를 진행하다가 재설계를 진행했다. 또한 신공학관도 공과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기존 설계안을 뒤엎고 홍익대 건축학과 이현호 교수의 설계안을 수용했다. 이는 민주화를 교시로 삼고 있는 우리학교에서 민주적 소통의 부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의 건물은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포용해야 한다. 그만큼 과정은 쉽지 않다. ‘사업비 확보’와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과 조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설계를 계획하고, 또한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가 수반돼야 한다.

과 사실로 확인됐다.

동국대 2018학년도 하반기 전학대회는 의결을 위한 최소 인원이 모이지 않아 폐회됐다.**(형평 빈 논의장…호지부지된 전학대회와 대의원 총회/동대신문, 2018.10.01.)** 2018학년도 하반기 대의원 총회 역시 학생대표자 참석인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아 폐회됐다. 전학대회는 전체 학생 대표자 92명 중 47명이 참석해 개최했으나, 중도 이탈이 늘어남에 따라 39명만 남아 ‘총장 선출제 관련 논의’가 무산됐다. 대의원 총회는 총회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가 대의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을 이유로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다.

연세대에선 학생회칙이 존재하지 않아 총여학생회 존폐에 대한 학생총투표 진행이 어려웠다.**(학생 자치의 기본, 회칙이 없다/연세춘추, 2018.10.8.)** 학내 구성원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에 회칙이 없어 총투표 참여 범위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내 16개 단과대 중 공과대, 상경경영대, 의과대에 회칙이 없는 점이 확인됐다. 회칙이 없는 단과대는 총학생회의 회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자치기구로서 자치성과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는단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과 기자 그 사이

세시봉

이후승 <국제 뉴스 팀장>



지난달 12일, 가을 대동제가 끝이 났다. 개교 이래 최초로 진행된 양 캠퍼스 공동 개최에 맞게 우리신문도 축제에 관한 취재를 준비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주 이용자층이 학생인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의 반응은 뜨거웠고 개·폐막식 내용을 담은 기사의 조회 수도 높았다. 하지만 해당 기사(양 캠퍼스 공동 대동제 성황리 마무리/대학주보 온라인, 2018.10.12.)의 댓글에선 난리가 났다.

축제 후 22일부터 26일까지는 학교가 지정한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우리신문 기자는 학생 기자라는 애매한 신분이다. 기자이지만 학생이기도 하다. 학교의 일을 올바르게 알리는 기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생이어야 기자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업을 소홀히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시험 준비에 들어간 기자들이 받은 것은 응당한 ‘비판’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의 ‘비난’이었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축제 기사만 작성한다’에서부터 ‘조회 수 조작하고 무거운 기사를 뒤로 미룬다’, ‘기레기 연습하나’는 내용까지 등장했다.

현재 학내를 뒤흔드는 소식은 많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총장 선출제부터 소식 없는 SPACE21 2단계 사업 등 대학차원의 문제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총여학생회(총여) 폐지 문제 등 학생사회 문제까지 가벼운 사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맞게 우리신문은 관련 사안을 열심히 쫓아왔다. 지난해 민주적인 총장 선출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우리신문은 계속해서 취재해 올해 발행된 11개의 신문 중 8개 신문에서 해당 사안을 1면에 비중 있게 다뤘다.

SPACE21 2단계 사업은 사업단의 폐쇄적인 태도가 취재를 어렵게 만든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만큼 학내 구성원의 관심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우리신문은 SPACE21의 문제점을 짚고 이후에도 수차례 2단계 사업 진행상황을 물었지만 ‘확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총여 폐지의 바람이 우리학교에도 불었다. 국제캠 총여 존폐문제가 곧 총투표에 붙어질 예정이지만 총학생회(총학)는 총여 존폐 문제에 관해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고 전방만 나열하는 모습이다. 열려야 할 확운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총학 주관의 큰 행사인 축제 동안 총학의 업무역량이 축제에 집중되니 해당 기간 총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혹자는 우리신문을 ‘어용’이라 하고 성향과 논조를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우리신문을 읽지 않았거나 본인의 뜻에 따라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의 투정이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면 된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변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도 없음을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자기다짐이기도 하다.

우리신문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학교에 있는 모든 독자들이 알고자 하는 바를 공정하게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길에 독자들도 의심 없는 눈으로 감시자가 되어줬으면 한다. 총장 선출제, SPACE21, 총여 이외에도 더 무겁고, 더 다양한 사건까지 늘 당신들의 옆에서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1면에서 이어짐

행복기속사가 가진 문제는 ‘사용승인’인데 반해 대자보는 ‘임주허가’와 ‘사용승인’이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다. 사용승인은 현행 「건축법」 제22조 3항에 근거한 절차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의 소유주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 박원규(사학 2013) 씨는 “전달성을 고려해 대자보를 읽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교가 대자보 표현상 입주허가, 즉 사용승인 없이 학생들을 입주시켰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행복기숙사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17년 8월 24일 다음 날인 25일부터 학생입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추가로 2년의 연장을 받은 상태다. 총학이 공개한 2017년 8월 21일 제22차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안건지에 따르면 총학이 사용승인 지연 문제를 전달받은 시점은 8월 16일, 입주 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 씨는 “구청의 사용승인이 불투명함을 인지한 시점이라도 입주 예정인 학생들에게 이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제22차 중운위 안전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학교와 당시 총학은 2017년 8월 16일 사용승인 문제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학교가 시위를 청탁했다는 대자보 주장에 대해 이 과장은 “당시 학교는 오히려 구청을 자극할 것을 염려해 과격한 대응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차 대자보에서 ‘비공개 밀실회의 문건’ 중 ‘구성원(학생)들의 단독적인 구청 의의제기, 민원, 주민 마찰 등에 대한 사전협의의 등’이라는 문구를 지적하기도 했다. SPACE21 사업추진단 건설사업지원팀 김태우 계장은 “학생들의 단독행동으로 구청과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이 없도록 학생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의 대자보 이후 개인 명의의 대자보를 걸고 사안을 설명한 제49대 총학 김혜영(아동가족학 2012) 전 부회장은 “경실련 대자보가 제시한 ‘내부고발’ 문건은 8월 16일 학교와의 면담에서 참고자료로 제공받은 것이다”라며 “당시 학교 측은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테니 좀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지만 총학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계장은 학교가 학생 안전을 경시했다
는 대자보의 주장에 대해서 역시 “행복기
숙사 건물 자체에는 안전 문제가 없다”면서
“만일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청에서
임시사용승인도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
고 말했다.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역대 최고 6위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지난 29일 발표된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평가에서 우리학교가 6위를 차지했다. 교수 연구 지원금 확충, 유학생 유치, 교원 수 증가를 높게 평가받아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위에 비해 4순위 상승했으며, 현장실습이나 창업교육 등 학생 교육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등 6개 계열 중 4개 이상을 가진 대학 57곳을 대상으로 했다. 특정 계열만 보유한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등의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종합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 지표는 '교수 연구' 부분의 10개 지표가 총합 100점, '교육 여건' 부분의 12개 지표가 총합 100점, '학생 교육 및 성과' 부분의 6개 지표가 총합 70점, '평판망'도 부분 4개 지표가 총합 30점으로 구성

됐다. 4개 부문에 걸쳐 32개 지표에 의한 평가는 총 3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교수 연구 부문 중 국제 논문단 피인용 지표에서 우리학교는 1.05점으로 7위에 올랐다. 또한 교수 연구 지원금 확충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외연구, 자체연구나 국내논문 게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교내 남사 교수 1인당 연구비는 약 1,372만 원으로 10위이다.

학생 교육 및 성과 부문의 지표인 외국인 학생 비율은 11.2%로 4위를 기록했다. 또한 서울 소재 사립대학 중 교수 법정 확보율을 100% 이상 달성하며 교수 확보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판도 부문은 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550명, 고교 교사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교사가 입학을 추천하는 대학에서 각각 8.10점으로, 7.28점으로 9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교육 여건 부문에서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

순위	대학명
1	서울대
2	성균관대
3	한양대(서울)
4	고려대(서울) 연세대(서울)
6	경희대
7	서강대
8	이화여대
9	한양대(ERICA)
10	중앙대

비, 세입 대비 기부금 비율, 기숙사 수용률 지표 모두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학생교육 및 성과 부문에서 순수 취업률, 현장실습참여비율 또한 10위권 밖이었다. 유지취업률은 1.034점으로 9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문병

원 팀장은 우리학교 위상을 견인한 부분은 학생교육 및 성과 부문이 가장 크다. 창업교육비율과 현장실습참여비율, 그리고 유지 취업률* 지표에서 전년대비 2점 이상 가까이 점수 상승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음으로 교육여건, 교수 연구 부문의 평가 점수가 의미 있다"며 "비록 교수 연구 부문의 점수는 하락했지만 대학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은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로 'LINC+사업 선정에 따른 창업교육센터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독점', '학생지원처와 취업진로처 등이 미래혁신원으로 통합'과 같은 제도적 운영이 학생들에게 창업교육, 현장실습을 더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유지 취업률=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한 직장에서 근무하는지 조사한 취업률 지표

유학생 위한 TF 구성, 내실있는 국제화 위한 걸음 시작

강래완 기자 krw97@khu.ac.kr
박소영 기자 notold@khu.ac.kr

【국제】 일이 갈수록 우리학교의 국제적 위상과 각종 대외 평가 국제화 수치는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국제화 지표는 유학생이다. 이러한 유학생을 위해 양 캠퍼스에서 ‘외국인유학생 관리제도 개선 TF’와 ‘외국인 유학생 교육수월성 제고 TF’가 구성됐다.

우리학교는 전국대학 중 유학생 수 1위, 유학생 비율 2위, 유학생 국제 다양성 2위, 교환학생 파견 2위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1,711명, 2016년에는 2,071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2,317명, 올해는 2,770명이다. 이는 학위과정에 한정한 수치다. 여기에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 연수과정 학생 수까지 더한다면 올해 우리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4,626명에 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학교는 유학생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외국인유학생 관리제도 개선 TF'와 지난해 8월 '외국인 유학생 교육 수월성 제고 TF'를 구성했다.

재정예산처 예산팀 주관으로 만들어진

‘외국인유학생 관리제도 개선 TF’는 각 단과대 행정실 관계자, 외국인 지원팀, 서울캠퍼스(서울캠) 유학생회 비대위원장 및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 사무처장으로 구성된 학생 대표로 구성됐다. 설립 취지는 외국인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교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 인상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에 의해 추가된 예산들을 각 단과대에 배정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등록금 인상 지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며 해당 내용을 단과대에 안내해 예산요구를 받아 단과대에서 유학생 관련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과대 유학생 대표와 학생 대표회의 의결을 정책제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 수월성 제고 TF’는 유학생들이 교육을 보다 잘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TF는 양 캠퍼스의 특성상 교육 수월성 제고

TF와 달리 캠퍼스 별로 운영된다. 국제캠퍼스의 경우 지난 8월에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교육 수월성 제고 TF 위원장은 강근 국제캠퍼스 부총장이며, 부위원장장은 오형나 국제교류처장이다. TF 위원들은 각 단과대별 추천을 받은 교수들과 국제교류처 직원들로 구성됐다. 교육 수월성 제고 TF는 필요시 외국인학생 및 국내 학생회 등 학생위원을 추가할 것을 고려 중이다.

국제점 교육 수월성 제고 TF는 지난 10월 1일과 22일 두 번의 회의를 열었다. 두 번의 회의에서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와 외국인학생들을 관리, 운영, 점검하기 위한 통합행정체계 확립을 논의했다. 또한 외국인학생의 학사관리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타 대학 외국인학생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입학제도 및 특성학과 편중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국제점 교육 수월성 제고 TF는 올해 12월까지 운영되어 내년 2월까지 결과보고를 끝낼 예정이다.

국제교류처 서경아 팀장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국제화지수도 중요하지만 많은 유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국제화도 중요하다”며 “공부하러 타국까지 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질 좋은

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측면에서도 학생을 도와줄 대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예산상 예산탑 이승민 계장은 "매년 학생들이 원하는 이슈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유학생 지원 방법이 무엇일지 학생들과 고민하고, 행정 라인에서 같이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한다. 중국에서 온 방방(태권도학 2017) 씨는 “학교에서 유학생을 위한 위원회를 만든 줄도 몰랐다”며 “위원회가 공부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 수월성 제고 TF의 구성 위원인 김종수(한국어학) 교수는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 활발히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학교에서 만든 위원회의 결실이 교육환경에 적용된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유학생의 교내와 교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Dance

2018 무용학부 창작공연



Young
Choreographer's
Dance
Project

일시 | 2018.11.13(Tue) / 15(Thu)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후원 | 무용학부 50대 학생회, 문화아이템팩토리센터



제10회 경희대학교 스포츠마케팅세미나
**스포츠산업의 미래,
e스포츠에서 답을 찾다.**

경희대학교 스포츠마케팅학회
DREPOS

Speaker:



Lee Seung-yong
블리자드 코리아
오버워치 e스포츠 팀장



Oh Ji-hwan
e스포츠 에이전트사
'이엘프로스포츠' 대표

Supporter:



주최 | 경희대학교, 우석대학교, 드레포스
 주관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경희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원

온전한 앞이란 무엇일까



제44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강연: 장희익 교수 (후마니타스 칼리지)
일시: 2018.11.21(수) 오후3시
장소: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내용: 강연, 도서증정행사, 사인회
문의: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02)961-0078

참가신청 QR코드



DREPOS

교육

학점 인플레이션 해소, 평가방식 혁신 선행돼야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지난 몇 년간 수차례 문제로 지적돼 온 ‘학점 인플레이션’현상이 여전히 대학가에 지속되고 있다. 학점 인플레이션이란 높은 학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점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학교는 학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학교에 속한다.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통계’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평점 평균은 86.6점, 90점을 넘는 학생은 31.7% 수준이다. 이에 반해 우리 학교 졸업생의 평점 평균은 88.7점, 90점 이상 학생은 45.9%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점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요구하는 기업과 사회의 탓이 크다. 기업 인사팀에 재직했던 박왕근 씨는 “기업에서는 많은 지원자를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해 뽑아야 한다”며 “이때 제일 정확한 기준이 데이터에 기반한 학점을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측에서는 각 학교 별 학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다”면서도 “같은 학교 지원자들의 학점이 동일하게 높다면, 학점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오민아(교육대학원) 교수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취업의 어려움이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대부분의 고교 졸업생들이 하고 싶은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간다”며 “각 대학은 졸업생들이 이후에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 하니 높은 학점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지적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5학년도 경영대학이 최초로 실시한 ‘B0률’이다. B0률은 강의 당 평점 평균을 3.0으로 맞춰야 하는 제도다. 당시 경영대학 이호창 학장은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과 강의 간 학점 평준화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B0률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B0률 시행 후 학생들의 학점 평균과 표준편차가 감소해 표면적으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해결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달랐다. B0률에 기반한 성적을 받은 학생 A씨는 “당시 B0률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학생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학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재수강 제도 등을 이용해 학점을 올린다.

을 완화하기 위해 B0률을 도입했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강의 당 평균을 3.0으로 맞추려다 보니 열심히 해도 높은 학점을 받기는 어려워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평균에 근접한 학점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B0률의 한계를 짚었다.

해결방안으로 시행된 B0률, 학생 반응 싸늘

교수들 역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했다. 우기동(지구사회봉사단) 교수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그러다 보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학교는 상대평가를 강화해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완화하기도 한다. 오민아 교수는 “동일한 과목을 강의하더라도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도가 다른 게 사실이다”라며 “절대평가라면 기본만 하더라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평가는 무조건 옆 사람보다 잘해야 하니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고 상대평가의 이점을 설명했다. 다만 “과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율성을 빼앗기고, 대학교육 자체의 의미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면 상대평가가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알 수 있다”고 한계를 언급했다.

평가방식을 대체로 교수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숭실대학교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덜한 학교의 대표적인 예이다. 숭실대는 2018 졸업생 평점 평균 85.9점, 90점 이상 학생은 22.8%로 국내 주요 대학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은 편이다. 숭실대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학점포기제’를 없애고 상대평가 비율 과목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숭실대 관계자는 “학점은 학생들에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도 강화는 하지 않고 있다”며 “교수들이 자책적으로 엄격하게 주시는 편이다”고 말했다. 또한 “성적을 단순히 잘 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내실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것이다”고 학점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지난 3월부터 1년간 새로운 평가방식인 ‘학부 교수자율평가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교수자율평가제란 다양한 평가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은 제도다. 교수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택일하거나 두 가지 방식 평가를 절충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를 택하더라도 등급별 인원제한은 없다.

이화여대 학적팀 장지현 차장은 “이 제도가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도입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학점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와 학점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키는 절대평가를 절충한 제도로서 과목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

다는 이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도입 단계라 정확한 결과나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교수와 학생들은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임은정 씨는 “교양과목은 점수가 워낙 촘촘해서 상대평가였을 때는 0.1점 차이로 A, B 학점이 갈라졌다”며 “절대평가로 바뀐 후에 압박감을 덜 느끼다보니 교양을 더 편하고 재밌게 들을 수 있었고, 전공에도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바뀐 제도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학점 인플레이션 해결 방안은 ‘역량평가방식’

우리학교에서는 ‘후마니타스제도약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역량평가방식’이 다른 평가방식의 예시 중 하나다. 역량평가방식은 성적이 아닌 학생들의 역량과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역량평가방식에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수평가 등이 있으며, 학점은 P/F 방식이나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이러한 역량평가를 위해서는 ‘역량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역량평가지표란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행동특성을 도출해 측정이 가능한 행동지표로, 개인별 수준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역량향상을 지향하는 지표다. 복합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인적자원 관리능력, 협업 능력, 감성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

적 유연성 등이 포함된다. 각 과목마다 해당하는 역량 몇 가지를 채택해 평가에 활용하며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수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기동 교수는 역량평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까가 아닌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로 고민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고 기대효과를 말했다. 하지만 오민아 교수는 “대학에서 학점을 줄 때 학생들의 민원이 가장 될 발생하는 평가체제가 바로 지필고사다”라며 “자기평가 혹은 동료평가를 포함한 역량평가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라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이상적인 역량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평가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지지와 공감기 필요하다”며 “서열화에 기대어 학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충분히 소화해냈는지 여부를 교수자가 직접 보고, 적절한 준거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점을 내는 체제가 잡힌다면 건강하게 작동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요구에 부합하려다 생긴 일종의 부작용이다. 문제점으로 인해 생긴 결과만 해결하려다 또 다른 문제만 생길 뿐이다. 평가 방식의 전환으로 평가를 위한 교육이 아닌, 배움을 위한 교육으로 체질의 변화를 꾀하며 올바른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등록 기간 : 2018.10.15 (월) ~ 11.2 (금) 16:00까지
• 추가 등록 기간 : 2018.11.5 (월) ~ 11.9 (금) 16:00까지

강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8. 11. 5 (월) ~ 12. 14 (금)

Level Test

• 영어회화 : 2018.10.31 (수), 11.1 (목) 17:30
• 일본어회화 : 2018.11.1 (목) 17:30
• 중국어회화 : 2018.10.31 (수) 17:30

Sample Lecture

• 영어 : 2018.10.31 (수) 17:15
※ 샘플강의는 강좌신청과 상관없이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Low-Intermediate / Intermediate /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레벨업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오전반 7:45 ~ 8:45 (월~목)	오후반 18:00~19:30 (화)			
	레벨			Screen English / 초급	Ted Talk / 중급 이상	Academic Writing Workshop (Resume&SOP) 중·고급 이상			
	수강료			90,000원		12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3/ 중급1/ 고급1/ 고급2		초급1	초급2	초급3	중급1	고급1	고급2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후반 18:00~19:30 (월, 수)	오후반 19:30~21:00 (월, 수)	오후반 18:00~19:30 (월, 수)	오후반 18:00~19:30 (화, 목)	오후반 18:00~19:30 (화)	
	레벨								
	수강료			초급1		초급2	초급3	CANTANDO	
						120,000원		MOVIE SPEAKING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9:00 (화, 목)		오후반 17:30~19: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82

http://www.iie.ac.kr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 공고

2019년 2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 내 원서를 제출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오니 해당자는 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2019년 2월에 졸업예정인 학생
2	접수기간	2018. 11. 1(목) ~ 11. 9.(금)
3	접수 및 문의처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 (031) 201-3401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 양식수령 :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비치 • 교직복수전공자(공통과목 연계전공 포함)는 무시험검정원서를 전공별로 각각 제출
5	유의사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미제출한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교원자격증이발급되지 않음 • 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변동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자 대상 인적성 검사 시행 예정(별도 개별 통보)
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 당해연도 졸업사정 통과 및 학위취득자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까지 - 전공과목(전필, 전선) 42학점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0학점이상 : 교직이론 14학점, 교과교육영역 4학점,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전공과정 및 교직과정 이수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 별도시행 인적성 검사 적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수료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과목(전필, 전선) 50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포함,교과교육 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전공과정과 교직과정 이수 성적이 평균 75점 이상 - 별도시행 인적성 검사 적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수료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과목(전필, 전선) 50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포함,교과교육 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전공과정 이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정 이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 별도시행 인적성 검사 적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수료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평가 방법은 ‘혁신중’ … 역량 기반한 이해·숙련도 주목

미래교양리포트④: 평가는 교육의 시작

류태호 (버지니아대학교 교수)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버지니아대학 교육 전문가 류태호 교수는 대학 교육의 근원이 이곳에 있다고 설명한다. 시험이 교육의 끝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그는 평가는 교육의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한다고 역설한다. 점수라는 숫자에 대응되는 학생들, ABCDF라는 낙인과 함께 모든 교육이 그 끝을 맺는 오늘날, 미래 대학의 길을 묻는 우리들에게 나침반은 평가가 교육의 끝이 아닌 시작이던 대학의 태동기를 다시 가리키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 교육이 도입되기 이전, 대학에서의 수업은 주로 멘토십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오늘날처럼 한 교실에 앉아 있는 수십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개별 학생들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파악하고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체크하며 멘토로서 학생들의 학습을 코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에 있어서도 지금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이나 선택형(객관식) 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A,B,C,D,F 중 학점을 부여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었다. 3~5인의 교수로 구성된 평가단이 학생 개인별로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점은 당시의 평가는 교육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각 학생마다 잘못 이해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찾아내고 그에 맞춰 이후 수업의 방향과 목표, 교수법 등을 결정했다. 즉, 개별 학생마다 해당 수업의 주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업하는 숙달기반학습(Mastery based learning)이 진행됐던 것이다.

물론 4년 동안 120학점 가까이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오늘날의 대학에서 숙달기반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매 학기마다 3학점짜리 수업을 최소 5개 이상을 수강해야만 졸업이 가능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나 보다는 어떤 학점을 받았는가를 더 중시하게 됐다.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열보다는 수업에서 보다 나은 학점을 받



역량기반 학습법을 적용한 해외 대학			
대학명	졸업 학점	Pass/Fail	학점 퍼센트
University of Virginia	120	24	20%
Yale University	108	12	11%
Purdue University	120	24	20%
Princeton University	108	12	11%
UC Berkeley	120	40	33%

기 위해 시험, 리포트, 그룹프로젝트 등에 더 집중하게 됐다.

시대 변화와 대학 교육의 본질

과정보다는 결과를, 효과보다는 효율을 강조하는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며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은 본질을 잃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 교육 기관으로 전락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미에 딱 맞는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 찾기가 어렵다며 대학 교육에 대한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다.

최근 한 예를 보면 구글, 애플, IBM 등 미국 내 거대 IT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대학 졸업장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IT기업들이 주로 채용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실제로 일을 시키면 결과 대학 학위와 상관없이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기술이 뛰어난 인재가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은 대학의 교육 및 평가 방식 개혁을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었다. 지식의 반감기가 갈수록 줄어들고 융·복합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기존 지식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지식 창출이 대학 교육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기존의 교육방식으로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능력, 복합문제 해결능력과 인지적 유연성 등을 갖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에듀테크 프로그램과 학습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개인 맞춤형 학습도 가능해졌다. 한 수업 안에서 개별 학생마다 다른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학습방법과 평가방식까지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역량기반학습(Competency based learning)을 통해 암기력이 아닌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교육평가 방법의 변화

대학에서의 역량기반학습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교수가 A,B,C,D,F와 같은 학점이나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대해 글로 써서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교수의 피드백을 토대로 자신의 학습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학습경험을 위해 어떤 부분에 치중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 대학의 경우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 알베르노 칼리지(Alverno College), 에버

그린 스테이트 칼리지(Evergreen State College) 등 다양한 대학이 이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두번째 방법은 Pass/Fail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졸업 학점 중 일정 학점을 Pass/Fail 옵션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나 주제에 대해 배워보고 싶은 경우에도 학점이나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다. Pass/Fail 옵션이란 A,B,C,D,F와 같이 학업 성취도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A학점에서 C학점 사이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P(Pass)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Pass/Fail 옵션을 결정하는 시기도 대학마다 다양하다. 수강신청을 할 때 Pass/Fail 옵션과 학점을 받는 옵션 중 하나를 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점을 받는 옵션으로 수강신청을 했다가도 학기가 시작한 후 1~2주 내에 Pass/Fail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다.

Pass/Fail 학점 중 몇 학점을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는지의 정도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10~30% 정도 선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나 퍼듀대학교는 졸업학점인 120학점 중 20%인 24학점을, 예일대학교나 프린스턴 대학교는 108학점 중 약11%인 12학점을 Pass/Fail 수업으로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다. UC버클리의 경우에는 120학점 중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40학점을 Pass/Fail로 수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학생, 평가대상이 아닌 학습의 주체

대학의 교육과 평가 방식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학생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라는 인식이다. 교수가 정한 답에 가까운 답을 제출할 수록 높은 학점을 받는 평가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점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 없이 학문 자체에 몰입하고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복합문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이상 뒤로 미룰 시간이 없다. 대학 교육과 평가 방식의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18학년도 경희역사기록물 공모전 개최 안내

경희기록관에서는 ‘2018학년도 경희역사기록물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경희기록관

가. 참가대상 : 경희대학교 관련 역사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부서 및 개인
나. 대상 기록물 : 경희대학교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

문서류	공문서, 간행물, 팸플릿, 포스터, 각종 중서, 강의노트, 서적 등
시청각자료	사진, 필름, 슬라이드, 음반, CD, 비디오테이프 등
박물관류	배지, 상패, 행사기념품, 우승컵, 우승기, 패너트, 의류 등

다. 기간 : 2018년 11월 5일(월) ~ 12월 7일(금) 18:00 마감

라. 기록물 접수처 : 경희기록관 사무실(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406호)

마. 우수 기증자 시상

- 1) 심사결과 발표 : 2018년 12월 21일(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2) 시상 : 수상자에게 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 3) 시상 내역
 - 대상 (1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 (3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우수상 (5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참가자 전원: 경희기록관 기념품

바. 기타

- 1) 공모전에 제출한 기록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경희기록관에서 영구보존
- 2) 개인 또는 단체(기관, 부서, 동아리 등) 응모 가능
- 3) 사진파일 등 전자기록물의 경우 e-mail 접수 가능 : 문의처 참조
- 4)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행정문서류 및 행사 관련 기록물 적극 환영

사. 문의처 : 중앙도서관 경희기록관 02)961-0759 / e-mail: archives@khu.ac.kr

장애학생

장애학생 권익 보장, ‘지원’이 아닌 ‘자치’가 답

안나연 기자 na@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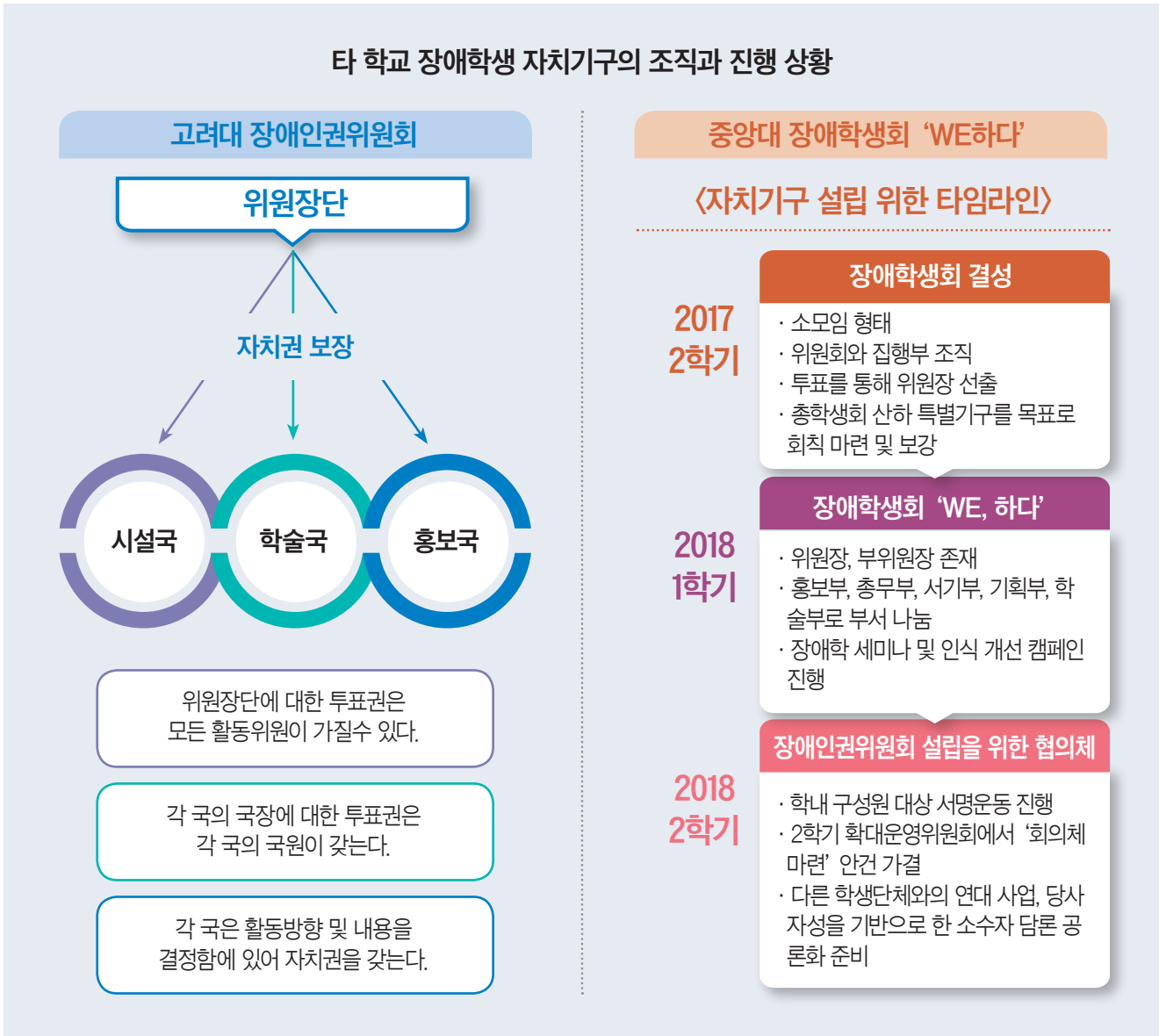
“정경대 교수회관, 자연사 박물관 등 장애인 승강기가 없는 건물이 있는데 이럴때 자치기구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김민제(행정학 2018) 씨의 말이다. 그는 이어 “총학생회(총학)가 이번 축제에 배리어프리 존을 만든 것은 긍정적이었다”며 “다만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매년 우리학교엔 최소 15명의 장애학생(서울캠퍼스 10명, 국제캠퍼스 5명)이 고른 기회전형으로 입학한다. 그러나 우리학교에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개진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자치기구가 없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장애학생지원센터(지원센터)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소수자 대변기구로서 요구되는 당사자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없이는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권익 옹호를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진행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며, 대변인이 대신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당사자주의를 실현한 기구를 학내에선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 서 사무총장은 “장애학생이 자치권을 갖고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몫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의 시작이자,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말한다. 정책 수립에 장애인의 주도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하는 장애인인권포럼 김용구 사무차장도 “장애학생이 겪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당사자성이 요구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총학과 장애학생이 활발한 소통을 진행해 장애학생만의 독자적 기구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말한다.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자치기구를 마련한 사례로 ‘고려대 장애인권위원회’(고대 장인위)가 있다. 지난 1998년 발족돼 1999년 총학 산하 특별기구로 인준된 고대 장인위는 총학 일반규칙 제 5조에 의해 그 자치성을 인정받는다. 고대 장인위 여동민(정치외교학 2017) 전임 위원장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자치기구로서 존재할 수 있어 당사자주의 실천이 지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며 “이는 의제를 발제하는 주체가 장애학생이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고대 장인위는 위원장의 임기를 한 학기로 규정했으며, 매 학기 중앙총회에서 장인위에 소속된 활동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재정 독립성도 자치기구의 속성을 드러낸다. 고대는 특별기구 전체에 전체학생회비의 10%가 예산으로 할당된다. 이는 특별기구연석회의체를 통해 고대 장인위를 포함한 8개 특별기구로 분배된다. 또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통해 예·결산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이와 같은 재정 독립성 확보는 곧 활동의 주체성을 보장한다.

여 전임 위원장은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돼 다른 단체와 협력도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고대 장인위는 장애학생이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학내 다른 단체와 협상도 진행한다. 이번 학기에도 학내 언론사 ‘KUTV’와 연합해 ‘고·연전’ 5개 경

기 중 4개 경기의 자막을 제공을 추진했다. 여 전임 위원장은 “현재는 협의 과정을 통해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나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 말했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홍채원(경영학 2017) 씨는 “장애 당사자로서 학교의 대소사에 자치기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하며 “나의 일을 나의 말로 할 수 있어 참정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제도나 시설도 당사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개선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자치기구가 학교 생활 속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역시 자치기구를 통해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고 당사자주의를 실천한다. 1999년 발족 이후 해체됐던 ‘한양대 장애학생인권위원회(한양대 장인위)’는 2008년 재설립돼 장애·비장애 학생이 동등한 권리를 지향한다. 총학 산하 중앙특별위원회

로서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한양대 장인위 정명철(경영학 2015) 위원장은 “학생 개인으로 존재할 땐 목살당할 수 있는 장애학생의 권리가 기구를 통해 보장된다”며 지난 2018학년도 1학기 축제기간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존을 예로 들었다.

배리어프리 존은 휠체어 사용자의 시야와 통행로 확보를 통해 장애학생의 축제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구역이다. 정 위원장은 “독립된 기구로서 장애학생 당사자성을 확보했기에 총학과의 협력이 가능했다”며 “축제뿐만 아니라 교내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총학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다”라 말했다.

한양대 장인위는 전체 학생회비의 약 1%를 예산으로 분배 받으며 재정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예산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를 통해 인준받는다. 또 투표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대표자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총학 선거 시기와 동일하게 11월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등록과 선거를 진행해 12월에 최종 결정된다.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장애학생 당사자주의를 실천하는 자치기구가 없다. 이에 서울캠 50대 총학 황규리(자율전공학 2016) 부회장은 “장애학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원센터 측에 조언을 구했으나, 공약으로 구상한 내용을 이미 지원센터에서 실현하고 있었다”며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기 보단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연결하고, 장애학생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원센터는 자치기구가 갖는 당사자주의를 표방할 수 없다. 지원센터는 특수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해 대학이 소수자 인권 존중을 위해 설치한 행정 기구일 뿐이다. 자치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 다수의 전문가 역시 두 기구의 역할이 상이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장총련 서 사무총장은 “지원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일 뿐”이라며 “장애학생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거나 장애학생이 본인의 몫을 찾는 곳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편의 제공과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혼돈해선 안된다”며 “서비스의 대상은 결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대 소모임 ‘WE,하다’는 학내 장애학생 자치기구 마련을 준비한다. 대표를 맡은 김세주(사회학 2015) 씨는 “자치기구의 발족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를 학교 담당자와 대면해 지원센터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의를 밝혔다. 이어 “지원센터나 총학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면 장애학생은 정치적 주체가 아닌 복지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공감하는 학내 구성원 430여 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장애학생인권위원회 신설준비를 위한 협의체’가 마련됐다.

장애인권포럼 김 사무차장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당사자인 내가, 나의 의견을 말하겠다’는 것은 중요성 이전에 당연한 이야기”이라고 말한다. 인터뷰에 응한 장애학생 김 씨 역시 이에 공감하며 “학내 자치기구의 역할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전했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강사법, 오해와 진실

교수칼럼

채효정

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난항을 겪어온 강사법이 드디어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발의돼 의결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0년 5월 조선대 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자신의 생존과 생계, 연구와 강의를 학과 지도교수에게 완전히 종속당한 채 논문대필까지 강요 받으며 살아온 비참한 현실을 죽음으로 고발하며 강사들이 당하는 차별과 부당한 처우가 알려지게 됐고 사회적 공분을 낳았다. 강사법 논의는 그렇게 시작돼 201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은 당사자인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7년째 4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더 이상 이 상태로 갈 수 없어 올해 3월 교육부의 주관으로 ‘강사법 개선협의회’가 구성됐고 기존 유예 강사법을 보완·개선해 합의안을 내놨다. 대학, 강사,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 나는 강사 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5개월간 총 회의 18차례, 워크숍 2회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누구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던, 최초의 강사법 합의안이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유신정권이 박탈한 강사의 교원 지위가 40여 년 만에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일부 언론과 인사들이 유포하는 부정확한 정보와 논리가 강사들을 해고의 공포에 떨게 하고, 대학에도 과도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사법은 대량해고법’이라는 가설이다. 강사법 시행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들이 법 시행 이전에 강사들을 대량해고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상 대학들의 대량해고를 정당화하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그럴까? 돈이 많이 든다는 말도, 돈이 없다는 말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대교협의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



지난 10월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시행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7년 간의 유예 끝에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은 총 3천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한다. 역 소리가 나지만, 전국 강사들 모두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이 고작 3천억 원이면 된다. 400개가 넘는 전국 대학으로 나뉘 보면 평균 7억 5천만 원 정도다. 그것은 도대체 대학 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돈일까. 경희대만 해도 1년 예산이 5천억 원이 넘고 고려대는 1조 원에 육박한다. 비율로 보면 강사 인건비는 대체로 대학 예산의 1% 미만이다. 우리가 담당하는 강의는 30~40%에 이르는데도 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대는 당연히 예산을 배정할 것이고, 사립대도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 장관은 예산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 시행을 방해하는 대학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와 국회가 이 정도로 의지를 보인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 대학이 할 일은 강사를 해고하는 등 법안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해 행위가 아니라 법 시행의 의지와 계획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정확한 소요 경비를 추계하는 것이다. 대학구성원들도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 대표적 유언비어는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 진입장벽’이라는 소문이다. 이 소문은 현직 강사와 강사가 될 대학원생 사이를 분열시키며 갈등을 조장한다. 개정 강사법은 1년 이상 계약하고 2회에 걸쳐 재임용 기회를 부여한다. 3년까지 임용이 보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강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이직 이동에 따른 결원도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마치 3년 동안 신규 채용이 완전 봉쇄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지금도 강사들의 평균 강의 기간은 3년 이상이다. 학문후속세대의 진로는 강사법과 무관하다. 오히려 그동안 무분별하게 늘어난 대학원 정원과 수강대란을 초래할 정도로 줄여온 학부 개설 강좌수를 검토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급을 맞추고 대학원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개임용의 원칙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는 공채 원칙만 합의했을 뿐, 기준과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담아야 한다. 현직강사에 유리하나, 신규강사에 유리하나는 논란은 지금 단계에선 무의미한 논쟁이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전임교수 시수가 늘어 전임교수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한다. 대학들이 강좌수를 줄이고 대형 강좌를 늘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도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수와 교수들, 선생과 학생을, ‘그들의 이익이 당신의 손해’라는 선동으로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는 갈등조장의 논리다. 그런 말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강사들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 착취를 계속 하자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노예가 해방되면 모든 것이 불편해진다. 그렇다고 이 대학판 노예제도를 계속 고수할 수는 없다. 지금 강사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악화시키는 것이고, 전임교수들의 연구와 강의 노동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 공동의 문제’다. 각자 선 자리에서 자신의 유리하고 불리한 따져서는 지금 상태에서 한 발도 벗어날 수 없다.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기말 시험을 채점하던 그 날, 메일 한 통으로 해고 당했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크리스마스는 그 날 이후 사라졌다. 가르치는 사람을 물건처럼 쓰고 버리는 일이 ‘후마니타스’란 이름을 내건 곳에서 일어난선 안 된다고 생각해 항명했지만, 나는 이 학교에서 어떤 소청과 재심의 권리도 갖지 못한 자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다. 교원소청권을 보장하는 강사법은 나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 강의가 폐강 되었는가?’, ‘왜 나는 해고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일개 강사 따위가 감히 물을 수 없는 질문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된 권리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당시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많은 교수들과 대학 본부는 강사들 사정이 딱하지만 나라의 법이 없어 우리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제 나라의 법이 생겼다. 어떻게 할 것인가.

참여마당

국제캠퍼스 총여학생회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전 부회장



총여 존폐 논의 반년 공고되지 않은 학생총투표

여학생 인권 신장을 목표로 시작된 총여학생회(총여)는 30년이 지난 지금 그 역할이 매우 모호해졌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에서 총여의 입지가 줄어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본인 또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몸소 느낀 바다.

지난 4월 대학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듯 대학 사회에는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더 나아가 학내 모든 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 국제캠퍼스 총여는 지난 2016년 학생총투표를 통해 남성에게도 투표권을 개방하고 그 해 최초로 남자 대표자가 당선되는 등 변화를 보여 왔을 뿐 아니라,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변화한 가치관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일회성 복지사업만으로도 벽찬 총여의 예산과 인지도로는 모든 인권을 아우르는 가치관에 입각한 활동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총여, 총학 산하 기구로 편입은
더 큰 혜택 가져 올 선택

게다가 올해는 재보궐 선거 무산, 임기 종료에 따른 예산 심의의 어려움 등이 겹쳤다. 따라서 총여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총학생회(총학) 내부 기구로 임시 편입시켜 학생들이 낸 자치회비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총여의 존폐 여부에 대해 직접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총여와 같은 기구를 총학 내부에 두고 운영하는 방안은 이미 많은 대학에서 대안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오히려 규모와 예산, 인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방법이 학생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총학과 논의해 성평등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수인계를 마쳤다. 또한 3월 28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 직접 총여 존폐를 다룰 총투표 안건을 최초로 발의하여 이미 의결까지 마친 상황이다. 예정대로라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총투표가 이뤄져야 했지만 그 시기가 매우 늦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대로 정기 선거기간이 시작되고 총여 입후보자가 발생하면 중운위에 안건이 상정된 것과는 별개로 총투표의 진행은 힘들어질 것이다. 총투표 시기에 대한 중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총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총학생회칙 제26조가 명시하는 바에 따르면 중운위 의결을 통해 요구가 있을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사유와 안건을 명시해 투표실시를 공고했어야 한다.

총여 부회장으로 1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11개월, 거의 2년이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함께한 총여를 본인의 손으로 직접 없애달라 제청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밝힌다. 비상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지는 못했지만 정당한 사유에서의 자료 요청에는 모두 응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학 성평등인권위원회로의 인수인계는 모두 되어있는 상태이고, 총투표 안건 상정에서 의결까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모두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본인은 졸업 준비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 최초로 밝힌다.

언어 습득의 비밀 - ④

능숙한 언어사용 가능케 하는 ‘자동성 획득’



외국어대학
김영주(한국어학) 학장

오늘도 출근을 위해 지하철자장으로 내려갔다. 차에 몸을 싣고 시동을 걸고 운전を 시작했다. 늘 그렇듯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운전을 했는데 차는 어느새 학교 인근을 지나가고 있었다.

운전에 대해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차를 운전하여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만 해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운전 규칙을 실행하고 법규를 지키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하였는데 이제는 저절로 운전하며 어려움 없이 목적지를 오간다.

생활 속 동작처럼

익숙해지면 언어도 자동

외국어 학습에서도 이러한 자동성이 발견된다. 능숙한 언어 사용자는 단어를 선택하고 적절한 문법형태소를 사용해서 단어들을 배열하여 의미를 산출하는 언어 사용 일련의 과정을 자동적으

로 수행한다. 여러 규칙의 나열이 었을 언어에 대한 명제적 지식은 실제 환경에서의 수많은 사용 경험을 통해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영어 학습 초기에는 단수와 복수, 과거와 현재 등 여러 문법적 지식을 의식해 문장을 구성하나, 적절한 언어 사용 환경에서의 연습은 의식적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문장을 산출할 수 있게 한다.

초기 학습 후 자연스럽게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수행하는 많은 스킬들이 자동성을 획득한 결과라 한다. 언어 학습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습은 명제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 or knowledge that)과 함께 시작해서 연습을 통해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or knowledge how)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심리학에서의 설명이다. 처음에는 단계마다 명제적

접근에서 시작하지만 같은 행동을 무수하게 반복하면서 명제적 지식이 자동적인 절차적 지식으로 넘어가고 자동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수한 반복을 통한 ‘습득’

유의미한 연습도 필요

언어 지식이 실제 연습을 통해 장기기억에 저장되고 자동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습득이라고 한다. 주목할 점은 자동화를 불러오는 연습은 무조건 따라하는 기계적 연습이 아니라 실제 환경 혹은 교육적 유사 환경에서 실제성을 띤 유의미한 연습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우리의 무수한 영어 문법 지식이 말로 쉬이 나오지 않는 까닭은 문법 지식이 명제적 지식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명제적 지식을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하게 할 유의미한 연습이 우리의 영어 교육에서는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자동성은 언어 처리에서도 유용하다. 능숙한 언어 학습자는 친숙한 단어를 들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한다. 그만큼 능숙한 언어 사용자는 텍스트나 회화의 전반적 의미에 충분한 주의집중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러나 덜 능숙한 학습자는 개별 단어의 의미 처리와 그들 간의 관계에 더 많은 주의집중을 기울여야 한다. 자동적 의미 처리의 부족은 외국어 학습자가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모어 화자보다 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한다.

일단 자동화가 이뤄지고 나면 명제적 지식에 대한 생각은 그 스킬을 실제로 실행하는 동안 그것의 자연스런 수행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거나 20년 경력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모든 동작에 대해 생각한다면 어떻게?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수행하느라 생각을 놓치지 힘들 것이다. 유창한

외국어 화자는 외국어로 말할 때 그들이 명제적 지식을 갖고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모어 화자가 모어의 문법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왕왕 서툴고 어려워함을 본다. 영어 문장에 대한 문법적 설명은 모어 화자보다 학습자가 더 잘하기도 한다.

습득 이후 노력은 방해대

수월해질수록 자동으로

언어 습득은 목표 언어가 장기 기억 영역으로 이동하며 일어난다. 언어 입력의 장기기억으로의 저장은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과 연습으로 가능하다. 유의미한 환경에서 목표 언어의 경험은 자연스런 연습으로 이어지고 명제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한다. 절차적 지식은 사용 환경에서 거듭 인출되고 잦은 인출은 어느덧 무의식적 사용, 즉 자동화로 이어진다. 자동화는 유창한 화자가 그러하듯이 여러 면에서 수행의 수월성을 드러낸다.

경희인(in)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18년, 아직도 꿈꾸는 엔지니어

경희인(in) 실리콘밸리④ : 김한규 동문

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혀 다른 세 전공의 학생이 글로벌융합설계장학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전공을 모색하고 돌아왔다. 김도훈(응용화학 2013), 유재욱(한국어학 2012), 류성한(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4) 씨는 세계 유수의 IT 공룡 기업이 모인 실리콘밸리,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희 동문을 만나 글로벌 IT기업 진출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보내온 이야기를 대학주보를 통해 소개한다. 네 번째 순서는 세계 3대 컴퓨터 기업인 'Dell'에 있는 김한규(전자·전파공학) 동문이다.

세계 굴지의 전자제품 기업인 삼성과 LG를 가진 우리나라이지만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특히 완성품 컴퓨터 부문에서 이들 기업은 맥을 못 춘다. 해외 컴퓨터 시장의 BIG3로 불리는 기업이 HP(휴렛팩커드), Lenovo(레노버), 그리고 Dell(델)이다. 컴퓨터 시장의 절대비율을 차지하는 이들 회사 중 델은 모니터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까지도 수백만 미군 컴퓨터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델의 EMC(정보관리/저장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생산업체)에 김한규(전자·전파공학) 동문이 있다.

김 동문은 델 EMC에서 정보관리와 저장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시니어 엔지니어 직무를 맡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서강대에서 석사를 거친 김 동문의 첫 직장은 두산 네트워크였다. “인터넷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여서 기업이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것이 김 동문의 시작이었다.

컴퓨터가 많아지고 서버와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늘어나던 중, 미국에서 열린 네트워크 관련 컨퍼런스로의 출장은 생각지 못한 전환의 계기였다.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생전 처음 여권을 만들었다. 영어는 한 마디도 못 하고, 말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김 동문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여러 경력을 거쳐 무선통신 기업이자 최근엔 스마트폰 부품으로 유명한 퀄컴의 한국지사에서 일하던 김 동문은 미국 퀄컴 본사와 네트워크 설비 기업인 시스코에서 이직 제안을 받았다. 그가 미국행을 선택한 때가 2000년 4월이었다. 김 동문은 “네트워크 분야에서 스카우트를 받아 미국으로 이직한 건 제가 국내 최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곧 입학할 2019학번 신입생들이 태어났을 즈음, 김 동문은 이미 미국 무대에 있었다.

실리콘밸리 입성 18년차, 김 동문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은 다름 아닌 ‘말하기’라고 강조했다. 김 동문은 “이곳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의견을 어필한 후 설득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설득력을 강화하는 기술이 바로 말하기라는 것이다. 동시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도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빈 수레가 요란한 모습이 된다”며 행동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학연과 지연 등은 배척해야 할 적폐라고 여기는 우리와 달리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서로의 실력을 보증하고 일자리를 주선해주기도 한다.

실리콘밸리 진출 이후도 중요하지만 진출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다. 김 동문은 학부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넓게 배우는 게 학부 생활의 핵심이지만 이것이 소홀히 배우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김 동문은 “어디든 학점을 기본적으로 보

니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의 특출 난 수상 경력 혹은 뚜렷한 성과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학벌이나 학점을 뒤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동문은 “일을 시작할 때엔 일단 시작을 하는 것과 시작의 계기가 중요하다”며 “본인의 ‘시작’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몸담고 있는 학부에 한계를 두지 말고 노력할 것을 조언했다. 실리콘밸리도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명문대를 나온 사람에게 쉬운 건 맞지만 그 반대로 못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동문은 “미국에서 경희대라는 학교를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는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출신, 학벌에 콤플렉스를 가지지 말고 노력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동문은 향후 실리콘밸리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 홀로그래프와 무인 자동차 기술 분야, 빅 데이터 관련 산업을 꼽았다. 이어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실리콘밸리의 대세”라며 “아무래도 실리콘밸리가 컴퓨터 공학을 중심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곳이다 보니 화학 및 기계공학 분야가 특별하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1세대 한국인이었던 김 동문은 고비도 많았다. 가장 큰 고비는 미국 생활 10년차에 찾아왔다. 어느 정도 쌓인 경력을 바탕으로 나타내고 자만했기 때문이다. 김 동문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가 주춤하면서 회사의 R&D 센터가 문을 닫았고 자연스럽게 퇴직 과정을 밟게 됐다”라고 말했다. 퇴직하면서 당연히 쉽게 이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녹록지 않았다. 김 동문은 “면접 기회가 적기도 했지만 면접을 보고도 합격하지 못한 것은 분명 내 잘못”이라며 “여러 번 이직에 실패하면서 게을러졌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회상했다. 한 달 여를 방황하다 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것이 그의 큰 전환점이었다.

김 동문은 현재 50대 초반이다. 한국에서는 은퇴와 노후를 걱정할 나이지만 김 동문은 조금 다르다. “적어도 67세까지는 지금처럼 엔지니어로 일하고 싶다”며 “주말에도 빠짐없이 업무 관련 트렌드를 공부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각광받는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8년 전 의도치 않은 이직이 큰 전환점이었다.” 김 동문은 당시의 일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은 발전을 위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말한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잘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프로그래밍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말에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새로운 스타트업으로의 진출도 생각중이다. “또 다른 열정을 갖고 싶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며 새로운 기술을 보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직업수명이 짧은 IT직군에서 한국과 달리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김 동문은 문화적 차이라 말했다. “실리콘밸리에선 이력서에 나이와 성별을 쓰는 것이 불법”이라며 “나이가 아닌 기술로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력과 경험이 출중하다면 해고당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 동문이 공부를 이어나가는 이유이자 향후에도 경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유다.

김 동문은 “투입한 노력에 비해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테다”라며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이 쌓이면 결국 본인의 경력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도 많이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응원자의 말을 보냈다.

(인터뷰어= 김도훈, 유재욱, 류성한 학생)

정리= 이후승 기자



“공에 물을 쥐 봐야 처음엔 흘러가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 공은 싹을 틔우고 콩나물이 자라난다. 공부도 이와 같다.” 김 동문은 공부를 콩나물 키우기에 빗대 설명하며 마지막 응원의 말을 보냈다.

